

홍석륜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국민교육헌장과 박정희 정권의
국민통제

200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성 윤 정

국민교육헌장과 박정희 정권의
국민통제

홍석륜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1월

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성 윤 정

인 준 서

성윤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論文概要

국민교육헌장은 박정희 정권이 추진하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은 근대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적합한 인력을 교육을 통해 양성하려는 정책적인 의도에서 제정되었다. 1968년 1월 18일 박정희 대통령이 권오병 문교부 장관에게 한국의 근대화과정에서 국민교육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방향의 설정과 시민생활의 건전한 생활윤리 및 가치관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장전을 제정하라는 지시하였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민교육헌장의 초안을 작성하고, 여러 차례의 수정작업과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작성되었다.

최종안은 11월 26일 정기국회를 통과한 후 12월 5일 엄숙하게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으로 선포되었다. 문교부에서는 국민교육헌장을 전국적으로 전파하기 위하여 학생, 공무원에게 전문을 암송하게 하고 국민교육헌장 독본을 간행해 이를 교과시간에 다루도록 하였다. 그리고 헌장에 입각한 학생 생활 규범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생활태도 확립운동을 전개하였고 각 교육위원회, 교육청, 학교의 교육계획도 헌장의 구현책을 근간으로 해서 설정하도록 하였다.

경제개발에 동원 가능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통을 배경으로 하고 민주사회를 지향하며 국민에게 자유와 평화와 정의를 보장한다는 국민교육헌장 초안의 논조는 여러 번의 수정작업이 진행되면서 경제발전 논리와 민족주체성이 결합되었다. 그리하여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천황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1890년에 공포된 교육칙어와 비슷하다.

박정희 정권에 1968년 이전에는 경제제일주의가 작용하였는데, 이후

에는 국가주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였다. 그래서 국민에게 나라의 발전이 나의 발전임을 강조하고 국가발전에 스스로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요구하게 되었다.

월남파병, 푸에블로호 사건, 닉슨독트린과 같은 국내외 정세 속에서 반공은 박정희 정권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승리자 편에 설 수 있는 절호의 명분이었다. 그래서 국민교육헌장에 반공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핵심으로서 국민생활과 의식 전반을 규제하는 최고의 원칙으로 관철되었다.

국민교육헌장 이념은 1970년대 주체성 교육을 강조하는 국적 있는 교육으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박정희 정권이 유신이라는 과업을 이루는데 첫 걸음이 되었고, 유신체제가 완성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目 次

論文概要

Ⅰ..... 1

Ⅱ..... 4

Ⅲ..... 4

Ⅳ..... 1

Ⅴ..... 3

Ⅵ..... 3

Ⅶ..... 3

Ⅷ..... 3

Ⅸ..... 4

Ⅹ..... 4

Ⅺ..... 9

Ⅻ..... 9

Ⅼ..... 35

參考文獻

ABSTRACT

I. 序 論

1960년대는 5·16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은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우며 경제성장에 총력을 기울인 시기였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 제일주의 교육정책을 펴나가면서 경제성장에 대한 적응교육과 이를 주도해 나가기 위한 교육이 강조되었고, 그 결과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과 물질적 가치를 숭상하는 경제제일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었다. 이처럼 경제성장 위주의 교육이 비판을 받으면서 한국적 교육이념을 모색하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¹⁾

1968년 한국적 교육이념의 필요성을 절감한 박정희 대통령의 교육장전을 제정하라는 지시를 계기로 국민교육헌장 제정이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지시에 따라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초안을 만들고, 여러 차례의 수정 작업을 거쳐서 국민교육헌장이 완성되었다. 국회 심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국민교육헌장이 마침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선포되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승

1) 김인희 외. 「해방 이후 반세기의 현장 자료분석을 통한 교육현장의 정치역학적 성격 규명에 관한 연구」, 『연세교육연구』 제 13호, 2000, 37쪽

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이며, 자유 세계와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국민교육헌장은 교육이념으로서 교육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박정희 정권이 국민을 통제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민교육헌장은 학교 교육의 지표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 속으로 전파되어 국가의 목표 아래 개개인을 종속시켜 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국민교육헌장은 국가가 국민을 서서히 통제해 가는데 밑바탕이 되었다.

국민교육헌장과 관련된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사적 관점에서 서술한 연구성과는 국민교육헌장 제정의 의의와 국민교육헌장에 담긴 교육이념과 구체적인 행동지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거나, 해방이후의 교육정책을 시대순으로 정리하면서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교육정책 중에 하나인 국민교육헌장의 제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통치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서술한 연구성과는 박정희가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부로 국민교육헌장을 제정했다고 언급하거나 국민교육헌장 제정작업에 참여했던 박종홍의 철학사상의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

민교육헌장이 교육과 통치체제에 미친 영향이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지만 국민교육헌장의 제정과정과 배포 및 실천과정과 국민교육헌장에 주입되어 있는 국민통제논리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²⁾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여 역사적 시각에서 국민교육헌장의 제정과정과 국민교육헌장의 배포과정과 실천과정, 그리고 국민교육헌장에 나타난 국민통제 논리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국민교육헌장과 관련된 주요저서와 연구논문은 다음과 같다.

국민교육협의회, 『국민교육헌장의 자료총람』, 한국경영개발협의회, 1972 ; 문교부 편, 『국민교육헌장독본』, 동아출판사, 1968 ; 박성탁, 『국민교육헌장의 실천적 배경과 그 실천』, 교육출판사, 1972 ;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교육 50년사 : 1948-1988』, 교육부, 1988 ; 문교 40년사 편찬위원회 편, 『문교 40년사』, 문교부, 1982 ; 한국개발원, 『한국 교육정책의 이념』, 한국교육개발원, 1986 ; 전재호,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연구: 담론과 정책을 중심으로」 서강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홍윤기, 「한국 도덕·윤리 교육의 이념적 혼돈과 정체성의 위기」, 『한국 도덕·윤리 교육백서』, 2001 ; 홍윤기, 「박종홍 철학 연구 : 철학과 권력의 퇴행적 결합」, 『역사비평』 제55호, 역사비평사, 2001

Ⅱ. 국민교육헌장의 제정과정

1. 정부차원의 초안작성과 수정작업

박정희 정권은 이승만·장면정권과는 달리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표방했다. 박정희는 자신들의 거사를 ‘민족적 혁명’, ‘국민혁명’이라 했고, 각종 성명서와 연설문, 책자에 민족이란 단어를 빈번히 사용했다. 박정희 정권의 민족주의는 경제개발을 위해 국민들의 자조·자립의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 그 요체였다.³⁾

박정희 정권은 당시 미국의 대한 정책의 기본틀 안에서 경제발전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민을 참여시키기 위해 민족주의를 동원하였다. 당시 박정희 체제는 민족주의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을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의 마음속에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한편, ‘조상들의 빛나는 얼과 예지’를 강조함으로써 민족적 자긍심(민족주체성의 확립)을 불어넣었다.⁴⁾ 박정희 정권은 이러한 생각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민교육헌장 제정을 추진하였다.

1968년 1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은 권오병 문교부 장관에게 敎育章典을 제정할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라고 지시하였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근대화과정에서 국민교육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방향의 설정과 시민생활의 건전한 생활윤리 및 가치관의 확립은 민족만년의 대계를 위해 중요하니 각계 각층을 총망라해서 민족주체성의 확립에

3) 홍석률, 「1960년대 지성계의 동향」, 『1960년대 사회변화 연구 : 1963-1970』, 백산서당, 1999, 237쪽

4) 전재호, 「동원된 민족주의와 전통문화정책」, 『박정희를 넘어서』, 푸른숲, 1988, 236-237쪽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것은 서구문화의 도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고유문화의 바탕 위에 새로운 민족관을 세워야하며, 제2 경제의 실천을 위해서 교육장전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⁵⁾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교부에서 국민교육헌장의 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권오병 문교부 장관은 장학실장에게 명하여 장학관·편수관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하였다.⁶⁾ 국민교육헌장 제정을 위한 기초 작업은 박성탁, 김동욱 장학관 및 은용기, 김종빈 편수관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기초 작업을 통하여 바람직한 인간상 내지는 국민상의 정립에 필요한 덕목들이 범주별로 분류되어 정리되었다. 처음에는 약 150개의 덕목들이 열거되었으나 이를 50개 미만의 덕목으로 압축하여 정리하였다.⁷⁾ 기초작업의 결과는 박종홍⁸⁾(성균관대 유학대학장), 이인기⁹⁾(서울대 대학원장), 유형진¹⁰⁾(건국대 교수) 등 기

5) 국민교육협의회, 『국민교육헌장의 자료총람』, 한국경영개발협의회, 1972, 22쪽

6) 중앙대학교 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문교사』, 중앙대학교 출판국, 1974, 417쪽

7)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교육정책의 이념(II):국가발전과 교육(1960-1979)』, 한국교육개발원, 1986, 77쪽

8) 박종홍은 한국 철학계와 지성계에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신남철, 박치우, 안호상 등과 함께 20세기 초반 한국철학계의 중심인물이다. 평남 평양에서 1903년 7월 1일에 출생하였으며, 평양고보를 졸업하고 전남 보성 및 대구에서 보통학교 및 고등보통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다. 경성제대에서 만학으로 철학박사를 마치고 이화여전 강사 및 교수를 하였으며, 짧은 기간이지만 조선 총독부 학무국 촉탁으로 근무하였다. 해방 후 이미 장년의 나이로 서울대 철학과 교수로 취임하여 대학원장으로 은퇴하였다.

9) 이인기는 경북 성주에서 1907년 6월 1일에 출생하였으며, 대구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제 5고등학교를 거쳐 도쿄대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경북대에서 명예문학박사를 수여하였다. 해방 후에 서울대 상대 학장으로 취임하여 서울대 대학원장 등으로 재직하였다.

10) 유형진은 강원도 원주에서 1926년 3월 5일 출생하였으며,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숙명여대, 건국대, 한양대에서 교수로 재직하였고, 대한교육연합회 회장, 새한신문 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초위원의 손에 넘어가서 6월말부터 본격적인 기초작업에 들어갔다. 한편 각 지방에서도 참고안을 만들어 제출하였으며 이들도 원안작성에 참고로 하였다. 1968년 7월 23일 제 1차 원안이 작성되자 문교부는 교육계, 학계, 언론계, 정치계, 경제계, 종교계 등 증진인사들로서 국민교육헌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속 심의회를 열었고, 심의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은 기초위원측에 돌려져 원안을 다시 다듬도록 하였다.¹¹⁾

문교부가 국민교육헌장의 제정을 위해서 선정한 현장기초위원과 심의위원은 각각 26명, 48명(기초위원은 심사위원직도 겸함)으로 구성되었다. 기초위원은 정치분야에서 박준규(서울문리대 교수), 사회분야에는 이만갑(서울문리대 교수), 역사분야에 김성근(서울사대 학장), 교육분야에 정범모(서울사대 교수), 철학분야에 이규호(연세대 교수), 경제분야에 박희범(문교부 차관) 등 6명이 제출한 논문을 토대로 하여 대학교수 20여명을 초청, 3회에 걸친 초안작성 준비회가 마련되었다.¹²⁾ 그리하여 7월 26일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 주재 아래 첫 심의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7월 23일 권오병 문교부 장관은 국민교육헌장 심의위원 44명을 발표하였다. 교육계에서는 박종홍, 이인기, 최문환, 임영신, 이종우, 김옥길, 이선근, 엄경섭, 한홍수, 고헌경, 권오익, 유형진, 백현기, 정범모(14명), 문화계에서는 이병도, 박종화, 김팔봉, 이은상, 안호상(5명), 종교계에서 한경직, 최덕신, 이청담, 김수환(4명), 언론계에서는 고재욱, 장기영, 장태화, 최석채(4명), 경제계에서 박두병, 홍재선(2명), 정계에서 이효상, 윤제술, 길재호, 박순천, 육인수, 백남익, 김성희, 고흥문(8명), 정부측에서 정일권, 박충훈, 권오병, 이석제, 홍종철, 김원태, 박희범(7명) 등 44명으로 구성되었다.¹³⁾

11) 중앙대학교 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앞의 책, 417-418쪽

12) 박호근, 『한국 교육정책과 그 유형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257쪽

1968년 7월 26일 전문 427字的 초안(草案)이 발표되었다. 다음은 국민교육헌장 초안 전문이다.

민족 중흥은 우리 국민의 거룩한 역사적 사명이다. 조상의 밝고, 의롭고, 슬기로운 얼을 현대에 되살려, 자주의 자세를 확립하고, 합심·단결·노력과 약진 속에 창조와 기쁨과 삶의 보람을 느낀다.

타고난 성능의 계발을 바탕으로 널리 학술과 기능을 배우고 익혀, 저마다 직분 따라 힘써 일하되, 성실한 인격에 뿌리박고, 자유에 따르는 책임, 권리와 같이 하는 의무를 즐기삼아, 협동 신의의 민주사회를 이룩한다.

국법을 지키고, 중의를 따르며, 국민의 복리를 골고루 하여, 전체의 안전과 번영을 기약하고, 생산과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는 합리의 새 생활에 효도와 우애, 서로의 은혜에 감사하며, 고상한 멋을 아는 전통의 미풍양속을 이어받아 국가 사회의 건전한 기풍을 일으킨다.

나라와 나는 하나인 것, 언제나 나라 사랑을 내 몸 같이 모든 일에 부지런하며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는 굳센 의지와 튼튼한 몸으로, 새롭고 우렁찬 국가 건설에 즐거이 봉사한다.

우리의 신념은 섰다. 반드시 이 땅 위에 통일 조국의 빛나는 앞날이 올 것이요, 자유와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은 나아가 인류의 이상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영광의 새 역사를 창조하고 그대로 후손들에게 길이 전하

13) 심의 의원 수는 여러 자료에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당초 기초위원이었던 柳炯鎭의 「國民教育憲章 制定의 秘話」(『교육평론』 1978.11, 23쪽)에서 50명, 국민교육협의회 刊 『국민교육헌장의 자료총람』, 22-23쪽에서는 44명, 한국청년문화연구소 刊 『한국교육 2000년사』 377쪽에서는 48명으로 기록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한국 교육정책의 이념(II)』, 1986, 78쪽)

자.14)

각 일간지들은 사실을 통해 헌장 초안을 검토한 의견을 게재하였다. 대체적으로 헌장의 제정자체에 대한 반대의견은 없었으나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는 우려만을 나타내었다. 각 일간지들의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너무 빠른 제정 과정에 놀라움과 아울러 불안한 마음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중략)이미 정부가 44인의 심의위원에게 맡겨 작성한 초안을 1968년 청와대 회의에서 최종확정을 짓는다는 것은 타당치 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청와대 회의에서 매듭진 것을 정식 초안으로 하여 다시 각계각층의 여론을 듣는 시기와 절차가 있어야 하겠다.15)

국민교육헌장을 제정하려면 이러한 대중들의 심급의 심층에 귀를 기울여, 그 분류를 주옥같은 문장으로 만인이 공감하도록 정리하는 것이어야 한다.16)

지난번 공포된 초안은 그것이 작성되기까지에 각 관계 분야에서 여러 학자들이 동원되어 많은 노력을 집주시켰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대다수 국민의 공명을 불러 일으키는 정도의 반응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14) 박성탁, 『국민교육헌장의 사상적 배경과 그 실천(上)』, 교육출판사, 1972, 324쪽

15) 『경향신문』 1968년 7월 27일자 사설

16) 『조선일보』 1968년 7월 28일자 사설

것 같다.(중략)국민교육헌장은 국민교육의 대지침이어야 하는 만큼(중략)필요한 상당한 분량에 또 어려운 표현이라도 사양할 것 없이 그 지침들이 어찌해서 어떤 형태로 요구되는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바이다.¹⁷⁾

언론은 국민교육헌장 제정이 졸속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바람과 국민교육헌장의 문장 형식, 양, 표현 등 하나 하나에 대해서 지적하는 등의 지엽적인 문제점을 거론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정도였다. 언론의 이러한 태도는 정부로 하여금 국민교육헌장을 범국민적 차원의 교육운동으로 실천하여 신뢰를 높이고 정치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일조하였다고 보여진다.

원래 권오병 문교부 장관은 8월말까지 심의를 끝내고 9월 1일쯤에는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국민교육헌장 제정을 신중해야 한다는 지배적인 여론과 심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초안 작성 후 5개월간에 걸쳐 8차례 초안 심의¹⁸⁾와 6차례의 수정 작업을 거치게 되었다. 6차례의 수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 『동아일보』 1968년 7월 31일자 사설

18) 전체회의(청와대에서 박대통령이 주관) 4회, 소위원회 회의(중앙청에서 정일권 총리주관) 4회, 모두 8회에 걸쳐 열렸으며, 비공식 회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다(박호근, 「한국 교육정책과 그 유형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257-258쪽)

<표 1> 국민교육헌장 원안(1968. 7. 26) 수정내역

| 회수 | 날짜 | 수정의 핵심 내용 | 핵심 개념 |
|-----|------|--|-------------------------------------|
| 제1차 | 8.1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헌장이 전국민이 준수해야 할 국민윤리이므로 “우리는”의 주어를 명확하게 부각시켰음. · 국민의 실천윤리를 개인, 사회, 국가로 확대하는 체계로 구상함. · 전통의 미숙을 가정윤리로 강조하여 개인과 사회 사이에 위치시킴. · 국민의 절대적인 사명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새역사 창조의 주인이 된다”로 다짐 호소하였음. · “자유, 평화, 정의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표현 삭제 | -“새역사” |
| 제2차 | 8.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폐를 지적하는 소극적 표현을 삽입하면서 적극적 덕성을 강조함. · 창조와 개혁의 정신을 첫 문절에서 표현함. · 애국, 단결, 창조를 강조하여 호소력을 높임. | -국민 정신 -국민 의식 -나라 사랑 |
| 제3차 | 8.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사랑을 강조하기 위해 첫 문장에 “이 땅에”라는 표현 채용 · 애국정신의 강조(“거룩한 조국”이라는 표현 삽입) · “민주사회”, “민주국가”개념 전면 삭제 | -국민의 식을 국민정신으로 통일 |
| 제4차 | 9.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지막 문단에 “반공의 정신이 투철할” 것을 강조 · “복리를 증진한다” 는 표현 삭제 | -반공의 정신 삽입 |
| 제5차 | 9.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정신에 관한 부분을 대폭 수정하여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밝히고 국가의식을 부각시켜도록 함. 즉 “자유와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과 의무를 존중하며”라는 기존의 구절을 | -반공 정신 -“애국 애족” |

| | | | |
|-----|------|--|-----------|
| | |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기 앞서서 국민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로 고쳐 ‘책임조건부 자유’ 및 ‘의무조건부 권리’ 의도를 분명히 함. | -“영광된 조국” |
| 제6차 | 9.30 | · “반공정신”을 “반공 민주 정신”으로 고쳐 애국의 핵심으로 확정. · “자유와 원리 주장하기에 앞서서 국민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를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로 수정. | -반공민주정신 |

출전: 홍윤기, 「한국 도덕·윤리 교육의 이념적 혼돈과 정체성 위기」, 『한국도덕·윤리 교육백서』, 2001. 317쪽

“추상적”¹⁹⁾이면서도 “팔방미인격”²⁰⁾으로 모든 좋은 것을 주워담듯이 산만하게 작성된 국민교육헌장 초안은 서술방식을 선명하게 가다듬어가고 개념적 압축성을 기하는 여섯 차례의 수정작업을 거치면서 짧은 시간 안에 기본 논조가 질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분명 원안의 전반적인 기조는 전통을 배경으로 하고 민주사회를 지향하면서 국민에게 자유와 평화와 정의를 보장하며 평등한 복리를 기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각 수정작업에서 변경과 수정, 보완이 가해진 내역을 추적하면 이 기조가 어떤 방향으로 변했는지 명백히 드러난다.²¹⁾

6차에 걸친 수정내역에 따르면, 자유나 평화나 정의 같은 현대윤리의 보편적 덕목은 아예 1차에서 삭제되고, 3차에 가서는 우리 국가의 민주주의적 성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배제된다. 그리고 수정작업이 진행되면서 국가의 성격과 원칙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19) 『동아일보』 1968년 8월 1일 설문에서 김상기, 이승녕 두 교수는 “헌장초안의 내용은 우리의 국민상으로서 알맞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너무 추상적이다”,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으나 추상적인 것 같다”라고 답했다.

20) 『한국일보』 1968년 7월 27일자 사설

21) 홍윤기, 「한국 도덕·윤리 교육의 이념적 혼돈과 정체성 위기」, 『한국 도덕·윤리 교육백서』, 한울, 2001, 316쪽

배제되면서 애국이나 애족이라는 명분아래 국가 자체에 대한 절대적 무조건적 충성이 강조된다. 그리고 이 과정은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할 우리 국가의 궁극적 목표가 반공에 있음이 역점적으로 부각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수정작업이 완료될 즈음 국민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윤리적 자세가 ‘국민정신’이라는 개념 아래 압축되면서 국민교육헌장의 핵심이 애국애족의 국가 절대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 경제지상주의적 실용성을 축으로 하고, 반공 통일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반공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총동원 태세의 요구로 수렴되어갔다.²²⁾

국민교육헌장 초안의 심의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시 현장 기초위원중의 한 사람이었던 유형진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국민교육헌장 속에 담겨져 있는 덕목들 하나 하나와 그 句節들도, 모두 하나같이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집약되어서 들어간 것이지만 특히 起草過程이라든가 심의회에서 甲論乙駁이 많았던 것은 「弘益人間」, 「孝道」, 「反共」 그리고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 등이다.

「弘益人間」은 우리나라 교육법 제 1조에 박혀있는 건국이념이기도 한 매우 중요한 정신이다. 해방 후 이 나라 교육의 최고의 이념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고 보면, 그 녀자는 마땅히 헌장 첫머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많은 위원들의 의견이었다. 그리하여 그것은 몇몇 위원들에 의하여 강력하게 주장되었다. 초대 문교부 장관을 역임한 安浩相 박사는 만일에 弘益人間의 녀자를 넣지 않는다면 심의위원을 사퇴하겠다고까지 발언할 정도로 거기에 집착하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녀자

22) 홍윤기, 「박종홍 철학 연구: 철학과 권력의 퇴행적 결합」, 『역사비평』 제55호, 역사비평사, 2001, 189쪽

대신에 「조상의 빛난 얼」이란 文句를 넣음으로써 타협을 본 셈이다.

「孝道」역시 다수의 심사위원이 헌장 속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의 하나이다. 심의위원 50명 가운데 꼭 반수인 25명은 그것을 넣어야 한다고 했으며 나머지는 반수는 빼야 한다고 하였다. 대체로 젊은 층은 後者에 속하고 노장층은 前者에 해당된다. 격론 끝에 「孝道」 두자는 빠지고 말았지만, 그 뜻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敬愛」가 들어갔으니, 그것은 「愛親敬長」의 敬愛이기도 한 것이다.

「反共」역시 가장 많이 曰可曰否를 기록하는 것의 하나이다. 이 두자를 넣는데 반대하는 측에서는 언젠가는 국토가 통일되어서 反共의 필요성이 사라질 날이 올 것인데 그때에 대비하여 미리부터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는 統一의 두 자도 마찬가지로라 하는 것이다. 그러나 朴 大統領과 尹濟述 국회 부의장 두 분의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反共」 두자는 결국 들어가고 말았다.

끝으로 「自由·權利 對 責任·義務」는 헌장 속에서 「...따르는」이란 동일한 차원을 뜻하는 접속사에 의하여 이어지고 있으나 원래는 「...를 주장하기에 앞서서」란 강력한 표현으로서 책임과 의무의 쪽을 더욱 더 강조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의 국민들에게는 자유보다는 책임의 쪽이 더욱 더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²³⁾

당시 심의위원들 간에 ‘홍익인간’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홍익인간’의 이념에 대한 논란은 그 구체성과 유효성을 문제시함으로써 재론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교육이념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굳혀 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비록 ‘홍익인간’이

23) 유형진, 「국민교육헌장 제정의 비화」, 『교육평론』, 교육평론사, 1978. 11, 25쪽

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국민교육헌장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구체화 내지는 계승한 것이었다.

즉 국민교육헌장은 민족주체성에 기초한 국민교육에 초점을 둔 것이고, 한국교육의 핵심요소를 교육의 기본이념 속에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교육헌장의 출현이 교육법을 대신하는 위치를 점하거나 혹은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교육헌장은 당연히 교육법의 홍익인간의 하위교육이념으로 구체화한 것이었다. 이러한 두 가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국민교육헌장은 홍익인간 이념에 대한 시대적, 사회적 재해석의 성격을 띤 것이라 할 수 있다.²⁴⁾

‘효도’, ‘반공’이라는 덕목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점을 통해 국민교육헌장 제정 당시 우리 사회의 상황이 ‘서구화’문제가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주체성을 강조한 것은 좋았지만, 지나치게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념을 강화함으로써 ‘일민주의’의 경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참된 민주주의 교육을 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민족을 강조하다가 한국적 민주주의가 제창되고 복고적 충효이데올로기가 정신교육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민주시민적 자질의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다.²⁵⁾

2. 국회심의와 여론의 반응

국민교육헌장은 5개월간에 걸쳐 8차례의 초안심의와 6차례의 수정작업을 거친 후 성안하여 1968년 10월 25일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였다.

24)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編, 『교육 50년사 : 1948-1988』, 교육부, 1998, 82쪽

25)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編, 앞의 책, 82쪽

이 동의안은 1968년 10월 29일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68년 11월 13일 제7대 국회 문공위원회에 「국민교육헌장 제정에 관한 동의의 건」이 상정되었다.²⁶⁾

이 날 권오병 문교부장관은 안전에 대한 제안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가. 국민생활의 실정이 해방후 20수년간의 무비판적인 외래사상의 수입으로 자립자활의 능력이 부족하며 조국근대화작업의 진보으로 경제발전이 확대되는 반면에 일반국민의 기본적인 생활태도가 뒤따라지 못한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확고한 교육이념을 정립하지 못하고 민족고유의 전통과 국민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한국적 가치관과 도덕적 생활윤리에 입각한 정신교육이 등한시되어 왔음으로 장차 나아갈 국민교육의 방향을 바로잡고 조국재건에 총력을 집중하는 기본자세를 확립하고자 각계 각층의 의견을 집약해서 제정한 국민교육헌장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골자와 참고자료에 대해서는 직접 기초하신 기초위원 세분이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동석을 했습니다.

이 동의안을 국회에 요청한데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의 대표하는 최고의 기관인 국회에서 이것을 좀 더 소상하게 다루어 주시면 저희들이

26) 국민교육헌장의 심의에 참석한 문교공부위원회 위원 명단을 다음과 같다.
출석위원: 육인수, 길재호, 길전식, 김규남, 김성희, 김종호, 설두하, 이상무, 이성수, 김옥선, 박순천 윤제술, 정상구
출석 국무위원: 문교부 장관 문오병
출석 정부위원: 문교부 차관 박희범
기타 참석자: 손연경(문교부 장학실장), 박성탁(문교부 장학관)
참고인: 유형진, 박중홍, 이인기(이상 국민교육헌장 기초위원)

앞으로 이 국민교육헌장을 항구적으로 또 교육적인 면에서 좀 더 정확하게 반영을 시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동의요청하는 것입니다.²⁷⁾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권오병 장관은 경제적 물질적 발전과 낙후한 생활태도 사이의 불균등을 헌장 제정의 근본동기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권오병 장관의 국회 진술에는 헌장 제정에 착수할 당시 집중적으로 강조되었던 ‘근대화 친화적인 국민상’의 정립 요구에 가려 제대로 의식되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새로이 부각되어 있었다. 그것은 “우리의 주체성”이라고 표현된 ‘민족주체성’의 문제였다. 이것은 국민교육의 측면에서 이른바 “국적 없는 교육”이라는 비판적 개념으로 표현되었는데, 이 개념은 박정희 체제가 국민교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 당시의 정치적·사회적·교육적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요약하고 있으며, 공공담론 형태로는 문공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²⁸⁾

문교부 장관이 제안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박성택 문교부 장학관이 국민교육헌장의 의의와 내용, 그리고 제정과정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뒤를 이어 유형진 기초위원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과정을 말하였다. 다음으로 박종홍 기초위원이 국민교육헌장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설명하고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이 되었던 점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인기 기초위원이 심의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문공위 심의에서는 헌장 제정의 기본입장이 일종의 교육만능주의 또는 국가 문제 해결에서 교육선도주의로 요약되는 교육관에서 출발함을

27)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제67회 국회 문교공보위원회회의록 제10호」, 1968. 11. 13, 1쪽

28) 홍윤기, 앞의 글, 「박종홍 철학 연구 : 철학과 권력의 퇴행적 결합」, 192-193쪽

알 수 있다. 즉 심의 사안의 직접 책임자인 문교부장관이나 박성탁 문교부 장학관 그리고 나중에 답변에 나선 박종홍, 이인기, 유형진 등의 전문가들은 ‘국민교육이 각 분야에서 국가가 처한 전반적 문제 상황에 대해 상당히 많은 책임을 져야하며, 또 국민교육만 제대로 정비하면 국가 전반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암암리에 공유하고 출발한다. 엄밀하게 말해 이런 문제들의 일차적인 원인은 엄혹한 분단 상황 아래 시민의 정치적 잠재력이 동결된 상태에서 급속도로 근대화가 추진된 결과 사회적 분화가 가속화되고 이해관계의 갈등이 첨예화된 것에서 찾아야 했다. 따라서 헌정 제정추진 측이 국민교육에 대해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요구했을 때, 이들이 만능의 해결능력을 기대한 국민교육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박성탁 문교부장학관이 “국민교육헌장 제정의 시대적 필요성”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교육분야의 실정에 관해서 한 발언을 보면 어느 정도 의문이 풀린다.²⁹⁾

우리나라 教育의 實情을 보건데도 지금까지 確固한 教育理念을 定立하지 못하고 民族固有의 傳統과 國民精神을 基盤으로 하여 精神教育과 人間教育을 志向하는 目的과 方向을 疎忽히 하여 왔으며 어느 나라에서나 通用될 수 있는 「國籍없는 教育」이 盛行하였고 一線教育에서는 單純한 知識注入教育에 흐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릇된 個人主義의 個性發展에다 置中하여 個人으로 하여금 그가 살고 있는 國家社會의 精神的 價値를 理解하고 國家의 運命을 開拓하는데 積極的으로 參與하고 奉仕하도록 指導해 주는 生活倫理에 依據한 國民教育이 等閑視되고 있

29) 홍윤기, 앞의 글, 「한국 도덕·윤리 교육의 이념적 혼돈과 정체성 위기」, 322쪽

다.³⁰⁾

이 발언을 개념적으로 요약하여 그 비관점들을 반사적으로 조합하면 한국의 국가, 사회문제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해결능력을 발휘한 한국교육의 이상적 상태가 재구성되어 나온다. 즉 한국 국민교육의 바람직한 구조는 “확고한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민족 고유의 전통을 체득한 국민정신에 충만한 주체성 있는 교육을 통하여 인간교육과 정신교육을 철저히 함으로써, 단지 지식과 개인적 이해만 추구하지 않고 ‘국가’의 일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는 도덕적 생활윤리를 일선 교육에서 총체적으로 지도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현장은 바로 이 교육이념을 제시하는 지도적 문서로 부각된다.³¹⁾

실무자들의 국민교육현장에 대한 설명 후에 김사달 전문위원이 “國民教育憲章에 대한 審査報告를 말씀드리겠습니다. 政府로부터 넘어온 案이 同意案이고 또 充分히 다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專門委員으로서는 별 異見이 없습니다. 따라서 國會側에서는 諒解事項으로 同意批准에 그칠 性質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시다(중략)여러 委員님들께서는 일단 制定經緯와 內容을 청취하였으니까 異議 없으신 滿場一致의 同意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³²⁾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대해 정상구의원이 “이 문제는 그 동안에 오랜 時間이 經過되고 해서 대충 이 問題의 줄거리라든가 問題點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野黨側로서는 한번 더 잠깐 停會를 해 가지고 모여서 여기에 대한 우리의 意見을 集約시키도록 여러분들이 諒解를 해주시면 잠깐 集約할

30) 「제67회 국회 문교공보위원회회의록 제10호」, 2-3쪽

31) 홍윤기, 앞의 글, 193-194쪽

32) 「제67회 국회 문교공보위원회회의록 제10호」, 10쪽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³³⁾라고 정회를 요청하자 육인수 위원장이 “우리가 될 수 있는대로 국민에게 滿場一致의 可決을 보기 위해서도 異見이 있어서는 困難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시 停會를 해서 그 동안 이 問題點에 대한 것을 充分히 論議하셔서 보다 이 案을 通過시키는 科程에 있어서 滿場一致의 通過를 希望하니까 이러한 意味에서 잠깐 停會를 宣布합니다”³⁴⁾라고 정회를 선포하였다.

위의 발언을 보아도 대부분의 보수세력은 국민교육헌장 제정에 대해 이미 동의를 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국회에 동의를 요청한 것은 국민의 총체적 합의에 의하여 헌장이 제정되었다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다. 그러나 문공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전혀 이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 신민당 정상구의원은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內容面을 말씀드리기보다도 施行科程문제 또 國會에 提出된 經緯 문제 등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 사퇴하고자 합니다.

첫째 同意案提出 必要性 유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중략)오 히려 國民教育憲章이라는 것은 與野를 超越한 汎國民的인 하나의 說得力과 國民全體를 理解시켜서 國民全體가 읽어야 되겠다는 하나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造成해야 되겠다는 意味에서 諒解事項에 가까운 同意를 얻는 것은 行政府當局보다도 이것을 實踐에 옮기는 데 뜻 깊고 次元높은 姿勢가 아닌가 그런 意味인지 먼저 여기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중략)萬一 몇사람이라도 반대의견이 나올 경우 오히려 行政

33) 위의 글, 10쪽

34) 위의 글, 11쪽

府 單獨으로 하는 것보다 效果를 減少시킬 憂慮는 없는지 그런 경우 文教部長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셋째로 制定한 배경과 內容面에 있어서(중략)個人主義를 清算하고 全體主義的인 념새가 나는 것이 다소 있다고 보는데(중략)이것을 施行하는데에 있어서 日本의 教育勅語 모양으로 이것을 重要的 行事に 登用시켜 가지고 이것을 使用하는 그러한 하나의 方式으로 나온다는 것이 重要的 問題입니다.³⁵⁾

어느 면에서는 대단히 형식적인 문제제기이지만 일본의 교육칙어가 그랬던 것과 같은 국민교육의 전체주의화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는 정상구위원의 이의에 권오병 문교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국회의 만장일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총의라고 주장하였고, 국민의 동의를 거친 만큼, 특정 이해관계에 대한 국회 나름의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는 일반 법안과 다르다고 답변하였다. 권오병 문교부 장관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먼저 本件 國民教育憲章에 對한 同意要請을 하는 必要性문제에 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國會에다가 同意要請을 한 主된 理由는(중략)國民全體의 意思에 依해서(중략)國民生活의 모든 分野에 教育을 통한 하나의 지표를 만들어야 하겠다.(중략)國會는 國民의 意思의 總集結體이고 또 가장 權威가 있는 代表機關이기 때문에(중략)이 教育憲章의 權威를 더 살려 나가는 唯一한 方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鎮重히 다룬다고 해서 國會에 同意要請을 한 것입니다.

35) 위의 글, 11-12쪽

勿論 政府로서는 한 분도 빠짐 없이 滿場一致가 될만한 資料로 여기에는 누구나가 異議를 할 수 없는 性質의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는 있습니다만 어떠한 意味에서든지 누가 여기에 反對한다고 해서 憲章의 基本精神이라든지 實踐해 나가는 方法에 있어서는 別 그리 큰 影響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중략)그리고 多少 憲章內容에 있어서 個人主義보다도 全體主義思想에 가까운 資料다. 或은 表現이 그럴 念慮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專門家들의 解說이나 또는 教育面에서 여기에 대한 啓蒙指導를 착실하게 하겠습니까만(중략)個人的 創意力이나 個人的 人格을 尊重해 나가면서 個人的 發展이 國家의 발전에 根源이 된다 그 相互의 個人과 國家의 關係를 有機的으로 分明히 나타났다고 합니다.³⁶⁾

김중호 의원과 김옥선 의원 등의 질의와 참고인 이인기와 박종홍의 답변이 있는 다음에 「국민교육헌장 제정에 관한 동의의 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나 모든 의원이 이의 없다고 대답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 날의 문교공보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異議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문교공보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국민교육헌장제정에 대한 동의의 건은 1968년 11월 26일 제 67회 제 24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박한상 의원이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할 성격이 아닌 사안에 대해 국회가 관여하는 것에 대한 절차적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내용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권오병 문교부장관의 국민교육헌장동의요청에 대한 심사보고 후에 「국민교육헌장제정에 대한 동의의 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한 의원도 빠짐 없이 이의 없다고 대답한 것은 아닌 모양이다. 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36) 위의 글, 12-14쪽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이라고 적혀 있다. 국민교육헌장은 같은 해 12월 5일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시민회관에서 선포되었다.

Ⅲ. 국민교육현장의 배포와 실천

1. 국가기관 및 교육기관을 통한 보급

국민교육현장이 제정되자 그 이념의 구현을 위하여 매우 강력한 조치가 있었다. 우선 전국의 학생, 공무원에게 국민교육현장 전문을 암송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곳에 이를 게시하고, 행사 때에는 이를 반드시 낭독하도록 하였다.

문교부는 현장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으로, 학교 교육을 통한 구현 방안과 성인 교육을 통한 구현 방안을 수립하였는데, 학교 교육에서는 첫째, 교육과정을 개편 구성함에 있어서 국민교육현장의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고, 둘째, 국민교육현장의 이념을 기반으로 모든 교과서 내용을 재검토 개편하고, 셋째, 이념 구현을 위한 장학자료를 작성·배부하는 한편, 넷째, 현장에 입각한 학생 생활 규범을 정하고 생활태도 확립운동을 전개했다. 한편 성인 교육을 통한 구현 방안으로는 첫째, 성인 교육용 교과서를 편찬하여 현장 정신과 내용을 교수했고, 둘째, 현장에 입각한 생활 윤리의 확립에 유익한 도서를 간행, 마을 문고 등을 통해 보급하는 등 현장 이념을 문교시책의 기본이념으로 삼았던 것이다.³⁷⁾

또한 문교부는 「국민교육현장독본」 250만부를 발간하여 각급 학교 및 기관에 보급하고 이를 교과 시간에 다루도록 하였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세워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게 하였다. 국민학교 어린이들에게 현장 이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 그림책」 130만부를 발간·배포 하였고, 그밖에 현장 이념을 담은 영화와 음반을 제작·보급하였다. 또한

37) 안상원 等篇, 『한국교육 2000년사』, 한국청년문화연구소, 1981, 383쪽

각 교육위원회, 교육청, 학교의 교육계획도 국민교육헌장의 구현책을 근간으로 해서 설정하도록 하였다.³⁸⁾

문교부에서 국민교육헌장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들을 다각도로 추진하였는데, 간행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실제 각급 학교에서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국민교육헌장 독본』에서는 국민교육헌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을 해설하고 있다. 그 중에서 헌장 본문의 머리말 부분에 대한 해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히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위의 글은 이 헌장 본문의 머리말인 동시에, 기본정신을 요약하여 말한 대목이다.

민족 중흥이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요, 그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상의 얼을 빛난 얼을 현대의 우리 형편에 맞도록 되살려야 한다. 우리는 지금 근대화를 시급히 촉진하여야 하겠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근대화임만큼 우리의 주체성의 근대화여야 한다. 그러함으로써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할 수 있는 것이요, 나아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오늘날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향하여 나아갈 바가 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정신적 자세가 국민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만큼 이제 그 내용을 밝힘으로써 국민교육의 지표로 삼는다는 것이다.³⁹⁾

38) 한국교육개발원, 앞의 책, 81쪽

위 해설은 “우리는 지금 민족의 중흥을 지향하고 있다”는 대전제 아래 “조국 근대화의 대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독본을 만들어 내용을 설명하고, 학생들이 암송하게 하는 주입식 교육은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덕목들은 생활 속에서 상황이나 시각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암기만 하고 있다면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학생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억압하고 체제에 순응하는 인물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나라의 발전에 필요한 인물은 단순히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많은 덕목들이 나열되어만 있고 총체적으로 추구하려는 인간상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들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970학년도에 문교부는 국민교육헌장의 이념 구현을 문교장학의 기본 목표로 하고, 일상 생활화하기 위한 실천지침을 작성하여 각급 학교에 시달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 국민교육헌장의 실천지침(1970학년도)

| 실천지침 | 세부 내용 |
|--------------|---|
| 교육과정 운영 개선 | 헌장이념의 이해·심화·생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을 위시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지도방법을 개선한다. |
| 학교환경 정화운동 전개 | 사제동행으로 바람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성과를 극대화하고 학교를 지역사회 개발센터로 활용한다. |
| 학교 육성회의 적정운영 | 교육의 사명감을 드높이고 교직원의 자세를 확립하고 일체의 학원 잡부금을 일소 근절하여 명랑한 학원을 건설한다. |

39) 문교부 編, 『국민교육헌장독본』, 동아출판사, 1968, 71~72쪽

| | |
|------------------------|--|
| 자활학교 육성권장 | 교직자의 협동적 시범과 학생의 자발적 협력으로 수익성 있는 학교 자체의 생산 방안을 마련하여 자조·자립정신을 함양하여 향토학교의 발전에 공헌한다. |
| 합동 실천 사항 | 국민운리를 실천하고 생활화하기 위하여 학생의 발달단계, 지역의 실정 등을 고려한 행동실천사항을 제정 실천하여 1일 1선하는 덕성을 배양한다. |
| 과학기술 교육의 진흥 | 국가발전의 기본이 되는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산학협동 체제를 확립하여 향토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인력개발에 전력을 경주한다. |
| 중앙교육 행정연수원 설치 운영 | 현장 이념 실천 지도의 주도체가 되는 교육행정 및 교직자의 자세확립과 사명감의 자각을 위한 연수를 중앙 및 지방 단위로 실시한다. |
| 학교 군사 훈련 실시 | 교련을 통하여 배우면서 싸우는 투철한 반공 민주정신을 함양하고, 국가 방위의 기본 자세를 확립하여 국방교육을 일상 생활화한다. |
| 체육 강화 | 보건·위생·체력 증진을 위한 종합적 교육계획의 실천으로 국민 체위의 향상과 강인한 체력 및 스포츠맨십으로 명량하고 협동적인 국민정신을 함양한다. |
| 가정의례 준칙사항 | 번잡한 허례허식을 폐지하여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는 합리적 생활태도를 함양한다. |
| 협력기구 | 각급 학교 단위로 학부모, 지방유지, 공공기관 및 각종 사회단체와 상호 협력하여 국민교육현장 이념의 범사회적 구현운동을 전개하여 교육의 사회화를 도모한다. |
| 유공자 표창 | 국민교육현장 이념의 구현에 솔선수범하여 공헌한 개인(학생·교사·사회인사) 또는 단체(학교·기관·사회단체)를 확인 장학하거나 또는 사회 여론을 통하여 적극 발굴 표창한다. |

출전 : 박호근, 「한국 교육정책과 그 유형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260쪽

위의 실천지침을 살펴보면, 각 학교마다 학교 특성에 맞게 현장의 이념을 실천하도록 실천 방향에 관한 내용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각 지침

에 따른 세부내용까지도 작성하여 보낸 점을 통해 중앙 정부에서 교육 내용을 통제하고 있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생활 속에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기보다 국가발전을 위해 국가가 학생들이 갖추기를 원하는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 내용에서 인력개발, 국방교육, 국민정신 함양이라는 항목들이 보이는데, 이것은 경제성장을 위해 박정희 체제가 원하는 국민상을 만들어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사항들이다.

문교부는 다시 국민교육헌장 행동실천 사항을 작성하여 학생의 성장 발달 단계와 지역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실천하게 하였으며, 일반 사회인들에게도 이를 범국민적으로 실천하여 헌장 이념의 생활화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3> 국민교육헌장 행동실천 사항

(1) 개인 생활

| 덕목 | 행동지침 | 실천사항 |
|------|---|---|
| 성실 | 1. 예지와 덕성, 조화있는 발전 2. 양심에 입각한 바른 행동 기반 3. 1일 1선 | 1. 거짓말 안하기 2. 약속 지키기 3. 습득물 주인 찾아 주기 4. 일기 쓰기 |
| 건강 | 1. 보건 체력 향상 2. 규칙적인 생활태도 | 1. 용의단정 2. 걷기 3. 몸 깨끗이 하기 4. 체력 카야드 5. 일과 지키기 |
| 학술연마 | 1. 진리탐구 정신 함양 2. 규칙적인 생활 태도 | 1. 교양책 읽기 2. 기초학력 갖추기 3. 1인 1기 습득 |

| | | |
|--------------|---------------------------------|------------------------------|
| 소질의 계발 | 1. 자기 재질의 고도의 실현 | 1. 취미 기르기 |
| 창조력과 개척정신 | 1. 진취적 창의성의 발양 2. 진취적 기풍의 진작 | 1. 연구심 기르기 2. 남보다 앞질러 일하기 |

(2) 가정생활

| 덕목 | 행동지침 | 실천사항 |
|--------|---|--|
| 실질과 능률 | 1. 헤테 폐지 2. 검소·절약·저축·근면 3. 과학적인사고와 합리적인 생활 | 1. 가정의례 준칙 이행 2. 1가구 1통장 만들기 3. 가계부 쓰기 4. 국산품 애용 5. 표준 오락의 활용 6. 미신 타파 |
| 경애와 신의 | 1. 인간의 존엄성과 자각 2. 예절 준수 3. 언어 순화 | 1. 어른과 부모 공경 2. 형제와 이웃 사이 좋게 지내기 3. 인사하기 4. 손 흔들기 5. 고운말 쓰기 6. 가풍 수립 |

(3) 사회생활

| 덕목 | 행동지침 | 실천사항 |
|--------|--|---|
| 협동 | 1. 상부상조 2. 파벌의식의 초월 | 1. 이웃 돕기 2. 파벌 없애기 |
| 공익과 질서 | 1. 공중도덕 준수 2. 상도덕 양양 3. 준법 정신 함양 4. 사회악의 제거 | 1. 교통도덕 지키기 2. 휴지 줍기 3. 침 안뺏기 4. 부정상품 안사기 5. 부정거래 안하기 |

(4) 국가 생활

| 덕목 | 행동지침 | 실천사항 |
|--------|--|---|
| 국가관 확립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 운명체 일원으로서 자각 2. 국민된 책임과 의무의 완수 3. 국가 건설에의 참여 봉사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체 경기 2. 봉사활동 3. 사치 안하기 4. 마을 꽃심기 |
| 애국 애족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기, 국가원수에 대한 예절준수 2. 반공, 민주생활의 실천 3. 통일 조국 달성을 위한 노력 4. 민족문화의 애호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기 달기 2. 국기, 국가원수에 대한 경의 표시 3. 간첩 신고하기 4. 국군 장병 위문 5. 무형 문화재의 계승 6. 문화재의 보호하기 |

(5) 국제 생활

| 덕목 | 행동지침 | 실천사항 |
|------|--|--|
| 인류공영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 이해와 협조 2. 세계적 사명 자각 3. 자유세계의 이상 실현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문화에 대한 비판적 취사선택 2. 외국인에 대한 친절한 응대 3. 국제 친선 행사 적극 참가 |

출전: 중앙대학교 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문교사』, 중앙대학교 출판국, 1974, 443-445쪽

위의 행동실천사항을 얼른 보면 국민교육현장에 나오는 덕목들과 관련 있는 지침이나 사항들로 보이나, 자세히 살펴보면 현장의 이념 구현

과 상관없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지켜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이거나 덕목과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실천항목들도 보이고 있다.

규칙적인 생활태도, 예절준수, 공중도덕준수 등은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기 위하여 현장이 아니더라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배우는 사항들이다. 그리고 국가 생활에 대한 행동지침에서 국기, 국가원수에 대한 예절준수는 박정희 체제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도록 국민들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된다.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의 구현 및 생활화에 대한 정부의 이와 같은 강한 의지는 곧바로 막강한 행정적 힘을 동원하여 각급 학교에 전달되었다. 이에 각급 학교는 모든 교육의 목표를 교육법보다는 국민교육헌장과 관련하여 세우게 되고 구체적인 상황을 상부기관에 보고함으로써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자발성보다는 행정적 지시·감독·보고에 체제의 수용성이 강조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1970년 문교부에서 발행한 『장학자료』에서 충청북도 교육위원회가 보고한 국민교육헌장 이념 구현계획 및 실적(실례)를 통해 알 수 있다.

가. 충청북도 교육 위원회

1969. 10 현재

| 영역 | 구현시책 | 계획사항 | 실적 | 실시기 일 |
|-------------------------------|-----------------------------|------|----------------------|-----------|
| (1)장 학 행 정 가)교육과 정쇄신 | (1)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영역별 행동 목표 수정 | 456교 | 456교 | 3월 |
| | (2)각 학교 교육목표 분석 | 456교 | 35덕목으로 분석 완료 386교 | 3-10 월 |

| | | | | |
|--------------|----------------------------------|-------------------------|-----------------|---------|
| 나) 장학지도 | (1) 장학전 특별교육 | 장학사60명 | 60명 | 3월 |
| | (2) 문교부 세미나 전달 강습 | 전교직원7,000명 | 7,000명 | 3-4월 |
| | (3) 학교 입장 지도 | 교장 연 2회 | 760회 | 3-10월 |
| | (4) 장학 통신 지도 | 주 1회 | 22회 | 3-10월 |
| | (5) 시범학교 운영 지도 | 국민교육헌장 시범학교 학교 4교 | 연구발표 4교 실시 | 11월 |
| 다) 학습지도 | (1) 헌장독본 집중 교육 | 456교 주 1회 | 13,680회 | |
| | (2) 교과별 단원 요소표 작성 활동 | 456교 | 456교 | |
| | (3) 독본 지도안 작성 배부 | 456부 | 456부 | 11월 |
| 라) 생활지도 | (1) 학생생활 지도지침 작성배부 | 456부 | 456부 | 4월 |
| | (2) 어린이 생활본 실천 지도 | 363교 | 363교 | |
| | (3) 헌장 이념 훈화 계획 작성 실시 | 456교 주 1회 | 13,680회 | |
| | (4) 집단 훈련 실시 | 중·고 93교주 1회 | 2,790회 | |
| | (5) 간부 학도 특별 교육 | 중·고학생회장 122명 | 122명 | 8월(4일간) |
| | (6) 학생생활 혁신운동전개(주 생활 목표 중점지도) | 456교 주 1회 | 13,680회 | |
| | (7) 봉사 활동 지도 | 456교 월 1회 | 3,192회 | |
| | (8) 헌장 전문 암송 지도 | 456교 주 1회 | 13,680회 | |
| 마) 교사교육 | (1) 강습회 연수과정에 구현과 정 실적(10%) | 1,354명 | 1,988명 | 8월 |
| | (2) 교내현직교육에 구현실현과 정 | 456교 주1회 | 13,680회 | |
| 2) 해설서 보급 | (1) 국민교육헌장 인쇄배부 | 인쇄20,000부 | 일반에게 20,000부 | 3월 |
| | (2) 일반용 해설서 보급 | 인쇄10,000부 | 일반에게 10,000부 | 3월 |
| | (3) 어린이 해설서 보급 | 초 363교 | 363교 | 6월 |

| | | | | |
|----------------|-------------------|-----------------------|----------------|--------|
| 3)강연·강좌 및 세미나 | (1)순회강연대회 | 2회 | 2회 | 4월 |
| | (2)세미나 개최 | 2회 | 문화원 2회 | 5월 |
| | (3)연구 서어클 조직 운영 | 교육연구원 5명 | 문화 연구 추진 중 | |
| 4)시청각매체 | (1)예화집 편집 | 150편 | 163편중 | |
| | (2)교지·교내신문 게재 | 456교 | 456교 | |
| | (3)실내외 게시물 전부 | 456교 | 456교 | |
| | (4)포스터·표어 현상 모집 | 1회 | 1회 | 6월 |
| | (5)포스터·표어 현상 배부 | 5,000매 | 각 기관·학교 5,000매 | 7월 |
| (5)연구발표 및 논문모집 | (1)연구 논문집 발간 | 456부 | 논문심사 중 | 12월 |
| | (2)이념 구현 연구 발표회 | 1회 | 1회 | 10월 |
| (6)성인교육을 통한 구현 | (1)성인교실 운영 지도 | 50교 6,000명 | 50교 6,000명 | 4, 11월 |
| | (2)구현 실천 요원 양성 | 12시군 24명 | 24명 | |
| | (3)유관 기관장 회의 운영 | 2회 | 2회 | |
| | (4)시범군 육성 지도 | 진천군 연 4회 | 4회 | |
| | (5)시범 부락 설치 운영 지도 | 50개 부락 | 50부락 | |
| | (6)예비군 훈련시 특강 | 강사(국교장) | 363명 | 수시 |
| (7)정례행사 | (1)현장 응변 대회 | 교내응변 456교, 시·군예선, 도대회 | 1회 | 도대회 |
| | (2)예능 발표 대회 | 교내예능 456교, 시·군예선, 도대회 | 1회 | 도대회 |
| | (3)체력검정 집단 체조대회 | 40,000명 | 40,000명 | 10월 |

| | | | | |
|----------------|------------------|------|------------------|-----|
| (8)유 공 자 표창 | (4)작품 전시회 | 1회 | 1회 | 10월 |
| | (1)교원 및 학생 표창 | 10명 | 심사 중 | 12월 |
| (9)평 가 연 구 | (2)실천요원 및 일반인 표창 | 3명 | 심사 중 | 12월 |
| | (1)평가척도표(구현실적)작성 | 1부 | 16항 48목으 로 작성 | 12월 |
| | (2)구현 실적 평가 | 456교 | 실시예정 | 12월 |

출전: 박성탁, 『국민교육현장의 사상적 배경과 그 실천(上)』, 교육출판사, 1972, 265-267쪽

위의 국민교육현장 이념 구현계획 및 실적을 보면 구현시책이 각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실천해 나간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의 지시를 잘 따르고 있음을 보고하기 위해 계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구현시책들이 현장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항목들이 아니고 현장을 학생들과 마을 주민들에게 강력하게 주입시키기 위한 항목들이 대부분이다. 국민교육현장 독본 및 해설서 작성배부, 현장 전문 암송지도, 예비군 훈련시 특강 등의 시책들은 단순히 현장을 배포하고 사람들에게 암기시키는데 주력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민교육현장 이념의 구현을 위한 문교부의 기본 시책에 따라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서는 현장 이념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침을 작성하여 모든 학교에 시달, 일선 학교로 하여금 이를 교육 활동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72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국민교육현장 이념 구현의 일반 방침으로 작성하여 각 학교에 시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교육현장 정신의 이론적 체득과 이해를 촉구하여, 교직원,

학생은 물론 학부모를 통한 범국민적 인식과 활동 조성에 각별한 시책을 강구할 것.

둘째, 道德, 國民倫理를 중심으로 각 교과 지도에 있어 교육 과정 구성, 학습 지도의 효율화, 교육 평가의 적절성 등을 연구 검토하여 현장 정신의 투철을 기할 것.

셋째, 국민학교는 물론이고 가정 교육도 중시하여, 일상생활을 통한 실천 사항을 습관화시키고, 인간교육의 기반 조성에 적극 유념할 것.

넷째, 선도적 사명감에 입각하여 교직원은 범국민적인 대중의 이해, 선도를 위하여 지역 사회에 파고들어가 현실 여건 위에서 교육의 사회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할 것.⁴⁰⁾

또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1973년도 장학지침을 위한 장학자료에 서는 국민교육현장 이념 구현활동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밝히고 있다.

첫째, 革新, 普及의 原則 ; 먼저 자기 혁신을 기하고, 주위에 숭선 수범하여, 장기간 계획으로 생활화시킨다.

둘째, 情義學習의 원칙 : 이념의 생활화, 심화한 지식을 학습하는 것 이라기 보다도 동기, 태도, 가치관 등을 학습하는 情義學習이 중요하므로, 교육에 있어서 특히 ‘言語-思考-行動’의 연결을 고려한다.

셋째, 國家·民族·사회 重視의 원칙 : 개인의 국가, 민족, 사회의 일원 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며, 투철한 민족 주체성을 바탕으로 국민 총화력을 배양한다.

40) 문교 40년사 편찬위원회 編, 『문교 40년사』, 1982, 350쪽

이상에서 살펴본 문교부와 교육위원회의 장학 방침에서 알 수 있듯이 1970년대 장학의 기저는 국민교육헌장의 생활화에 두고, 새로운 한국인상의 정립을 기본 목표로 하고, 국민윤리의 실천, 국민정신의 진흥,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과 더불어 새로운 교육 풍토의 조성에서부터 시작하여, 1972년부터는 안보 교육의 강화, 1973년부터는 국적있는 교육, 민족 주체성 교육 등 유신체제의 확립이 강조되었다. 특히 1972년 10월 유신 이후 한국 교육은 국민교육헌장 이념의 구현에 중점을 두었다.⁴¹⁾

2. 교육현장 실천사례의 분석

국민교육헌장 실천에 관한 보고서나 실천기가 여러 교육관련 잡지에 수록되었는데, 『원보』에 실린 강원도 교육위원회 지정 연구시범학교인 춘천여자중학교의 실천사례와 『전남교육』에 실린 여수남초등학교 교사인 김문기의 현장 연구 실천기를 중심으로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국민교육현장이 실천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춘천여자중학교에서는 교과지도를 통한 지도는 물론이고 생활지도를 통해 국민교육헌장 이념 실천에 주안점을 두고 학년별 윤리영역별 덕목지도를 중심으로 국민교육헌장 이념에 관한 실천적 연구를 하였다. 여수남초등학교 김문기 교사는 국민교육헌장 행동실천사항 중 학생들에게 결여된 항목을 선정하여 실천사항에 대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실천함으로써 습관화되도록 했다. 춘천여자중학교와 김문기 교사의 연구 내용 중에서 학교생활지도 목표의 일부와 일반 구현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한국교육개발원, 앞의 책, 83쪽

b. 학생생활지도 목표 설정

연간 월별 주별 생활목표를 헌장이념 구현 실천덕목을 중심으로 설정하여 생활지도 전반을 본 지도목표에 일원화시켜 지도하고 있음. 그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음.

| 월 | 헌장덕목 | 월간생활목표 | 주간생활목표 및 실천사항 | | | |
|---|------------------------|------------------------------------|------------------------------|-------------------------|--------------------------|----------------------------|
| | | | 1주 | 2주 | 3주 | 4주 |
| 3 | 1. 애국애 2. 신념과 공지 | 우리는 대한 민국 국민이 요 학생임을 자랑하자 | 민족의식을 고취하자 | 애국하는 마 음을 실천에 옮기자 | 절도있고 지 조있는 생활 을 하자 | 고민하 지 않고 비굴하 지 말자 |
| | | | 1. 국기를 바 로 알고 바 로 달자 | 1. 자학자습을 실천하자 | 1. 교구를 잘 지키자 | 1. 고운 말을 쓰 자 |
| | | | 2. 애국가를 정확하게 부 르자 | 2. 교구를 아 끼자 | 2. 오늘 일은 오늘 끝내자 | 2. 인사 를 잘하 자 |
| | | | 3. 국기 게양 시는 엄숙한 태도를 갖자 | 3. 반공의식을 고취하자 | 3. 계획 있는 생활을 하자 | 3. 남과 싸우지 말자 |

B. 일반 구현 사항

1971년 3월 1일자로 전남 도교위에서 작성 시달한 『새 마음 심기운동 요강』의 정신과 목적이 국민교육헌장 이념에서 발원한 새로운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교육의 사회화 추진의 구체안으로 파악하여 그 실천내용을 요약하고자 한다.

1. 불우 학우 돕기 실적
2. 37개소 이웃공부방 설치로 자율학습 태도 육성과 협동 봉사 정신을 기르고 애향심을 갖도록 하였다.
3. 어머니 교실 운영으로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생활지도의 애로점을 타개하는데 많은 협조를 보았다.

위의 국민교육헌장 실천방법이 겉으로 보기에는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실천덕목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자세히 보면 박정희 정권이 국민을 용이하게 통제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항목들에 국기와 애국가를 바르게 아는 것과 반공의식 고취와 애향심을 넣음으로서 커다란 저항 없이 의식 속에 국가에 대하여 국민 모두가 절대적인 충성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는 교육을 통해 국민의 사고 속에 국가의 명령에 저항 없이 따르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었던 것이다.

IV. 국민교육헌장에 주입된 국민통제논리

1. 복고적 민족전통과 주체성에 대한 강조

국민교육헌장은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때다.”와 같이 민족 이념을 강조하면서 시작한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이 처음부터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자긍심을 가졌던 아니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은 국권상실의 과정을 거쳐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민족의 이익보다는 일본제국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었다. 따라서 이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일본은 한국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한국의 정체와 미발전을 가져온 것으로 치부하였고, 이러한 사고는 식민사관으로 체계화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는 식민지시대 한반도의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그들은 “전통문화는 패배한 문화, 버려야 할 문화, 개혁되어야 할 문화”로 인식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는 해방 이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박정희가 이후 쓴 『우리민족의 나아갈 길』(1962)이나 『국가와 혁명과 나』(1963)를 보면, 박정희의 민족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우리민족의 나아갈 길』 제2장 「우리민족의 과거를 반성한다」 및 제3장 「한민족의 수난의 여정」에서 조선시대와 한국의 근대사를 비판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는 주로 혁명의 당위성과 업적을 서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천년 역사는 개선돼야 한다.”는 절에서 한민족의 역사를 “퇴영과 조잡과 침체의 연쇄사”로 규정

하였다.⁴²⁾

이렇게 민족 역사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던 박정희 대통령이 민족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부각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권오병 문교부 장관에게 교육장전을 제정할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라고 지시한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의 근대화과정에서 국민교육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방향의 설정과 시민생활의 건전한 생활윤리 및 가치관의 확립은 민족만년의 대계를 위해 중요하니 각계 각층을 총망라해서 민족주체성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할 것”이라고 말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1960년대 식민지 상태를 벗어나 독립을 이룩한 제3세계 여러 국가들이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이용한 것처럼 박정희 정권도 조국 근대화를 이룩하는데 민족주의를 동원한 것이다.

이러한 박정희 체제의 민족 주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은 국민교육헌장 제정작업에 참여한 박종홍의 경제발전으로서의 근대화 논리와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제어로서 전통문화와 전통 사상에 대한 강조로서의 주체성의 논리를 만나면서 활기를 띠게 되었다.

박종홍은 서양의 문화를 단순히 수용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것을 새롭게 창조해 섭취할 것을 주장했으며, 나아가 우리 속에 남아 있는 실학의 전통을 향외적 태도의 중요한 기반으로 삼고자 했다. 우리 전통사상에는 이미 서양의 자유민주주의사상, 실존주의, 과학기술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체적으로 섭취해서 민족의 정기를 새롭게 되살려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것을 새롭게 살릴 환경이 그 동안 제대로 확립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면서 이제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2) 전재호, 앞의 책, 241-242쪽

다. 특히 그는 70년대 이르러 경제적 자립이 없이는 결코 한국 사상도, 자주 국방도 확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런 주장은 박정희 체제의 정책관과 그대로 상통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발전 논리는 조국 근대화 와 민족 주체성 확립이라는 논리와 함께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⁴³⁾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태어난 국민교육헌장은 첫머리에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라는 문구를 넣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근대화를 시급히 촉진하여야 하겠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근대화만큼 우리의 주체성을 살리는 근대화이어야 한다”⁴⁴⁾라고 헌장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박정희 체제와 박종홍이 주체성의 논리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성격은 헌장의 내용 이외에도 국민교육헌장 이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간행된 책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국민교육헌장의 사상적 배경과 그 실천』에서 헌장의 사상적 배경을 우리 역사에서 찾고 있다. 홍익인간의 건국 이상, 화랑도와 민족정신, 불교의 호국사상, 이조시대 유교사상, 실학사상과 주인정신, 동학과 민족 주체성 등을 사상적 배경으로 들고 있다. 『새교육』⁴⁵⁾에서 유형진은 국민교육헌장이 한국 교육 발전사에서 의미하는 바 두드러진 것은 첫째로, 주체성의 확립을 들 수 있고, 둘째로 교육목적과 교육방법의 조화를 들 수 있으며, 셋째로, 전통과 진보의 조화를 들 수 있으며, 넷째로 개인의식과 국가의식의 조

43) 김석주, 『현실 속의 철학 철학 속의 현실 : 박종홍 철학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 책세상, 2001. 169-170쪽

44) 문교부 編, 앞의 책, 71쪽

45) 유형진, 「국민교육헌장이 뜻하는 것 : 60년대 문교정책을 채점한다」, 『새교육』 21, 11, 1969, 51쪽

화를 들 수 있으며, 끝으로 자유와 훈련의 조화를 들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국민교육헌장은 일본이 천황의 권력을 교육에서도 정당화하기 위하여 천황의 이름으로 1890년 공포한 교육칙어와 비슷한 점⁴⁶⁾이 있다. 교육칙어는 1890년 10월 23일 메이지 천황에 의해 ‘渙發’된 이후 1945년 이전까지 일본 근대 교육의 최고 이념으로 간주되었다. 일본이 대만과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시작하면서, 교육칙어를 일본에서와 동일하게 식민 교육의 이념으로 강제하였다.⁴⁷⁾ 조선의 경우, 1911년 10월 일본 천황이 조선 총독에게 교육칙어를 하부하는 방식으로 식민지에 들어왔다. 교육칙어는 일본 교육만이 아니라 조선의 보통학교 교육을 포함한 식민 교육 전반의 최고 이념으로 부상한다. 조선 총독부는 1912년 1월 교육칙어 등본을 관공사립 각 학교에 배부하는 한편, 훈령 제 1호를 통해 각종 式日⁴⁸⁾에 그것을 낭송하도록 법제화하였다.⁴⁹⁾다음은 교

46) 1968년 8월 1일 동아일보에서 국민교육헌장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김상기, 김재준, 윤석중 등 교육계 인사 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문교부가 추진하는 헌장의 구현 시책들은 타당하다고 인정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일제 때 교육칙어를 연상시켜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다.

47) 1911년 8월에 공포된 「조선교육령」의 제2조에서는 교육목적을 ‘敎育의 勅語의 旨趣에 기하여 忠良한 국민을 양성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근대 일본 국민 형성의 지침이 되어 온 ‘교육에 관한 칙어’를 한국인에게 적용한 것이다. 교육칙어의 핵심은 천황의 총량한 신민으로서 최대의 의무가 ‘일단 緩急이 있으면 義勇으로 奉公하여 天壤無窮의 皇軍을 扶翼해야’ 하는 것이란데 있다(김경미, 「보통학교제도의 확립과 학교 훈육의 형성」,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일상생활』, 2004, 505쪽)

48) 주요 학교 행사일은 다음과 같다. 국체 명정일(매월 1일, 15일), 애국일(매월 1일), 부국 저금일(매월 6일), 근로보국대 봉사일(매월 6일 및 적당한 날), 전교 체육일(매월 10일), 자치실행회(첫째 일요일), 폐물회수 헌금일(월 1회), 인고단련일(매주 토요일), 근로봉사일(매주 수요일), 용의, 학용품 검사일(매주 토요일), 열단 분열식(월 1회), 소년 검도회(월 1회), 신사참배(매일), 국기계양(1, 15일, 축제일, 기타), 위인제 등 그것이다. 이런 학교행사는 “국민적 정조를 함양하는 제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여 일제말기로 갈수록 더 빈번해졌고, 집단훈련이 강조되었다(김진균 외, 「일제하 보통학교와 규율」,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세력』, 1997, 100쪽)

49)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236-237쪽

육척어의 전문이다.

저는 우리 일본이 선조들의 ‘道義國家實現’이라는 원대한 이상을 기초로 생겨난 나라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충효라는 양대 기본을 주축으로 전 국민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오늘날에 이르는 훌륭한 성과를 이루게 된 것 입니다. 이는 원래 타고난 일본의 국체가 훌륭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디다만, 더불어 저는 교육의 근본 또한 ‘道義立國’을 달성하는데 있다고 믿습니다.

국민 모두는 자식은 부모에 효를 다하고, 형제 자매는 서로 힘을 합쳐 도우며, 부부는 사이 좋게 지내며, 친구는 서로를 믿으며, 그리고 자신의 언동을 신중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손을 뻗어 학문에 힘쓰며, 직업에 전념하고 지식을 쌓으며, 인격을 닦고 더욱 나아가 사회 공공을 위해서 공헌하며, 또 법률이나 질서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며,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선명을 다해서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선량한 국민으로서 당연한 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들의 선조가 지금까지 물려준 전통적 미풍을 한층 밝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민이 걸어가야 할 이 길은 선조의 교훈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변하지 않는 바른 가르침이기 때문에, 나도 국민 여러분과 같이 조상의 가르침을 가슴에 안고 훌륭한 일본인이 되도록 마음으로부터 엄원합니다.

메이지 23년 10월 30일⁵⁰⁾

50) 강미래, 『교육현장에 내재된 일상적 파시즘의 실태와 극복방안』, 진주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40-41쪽

국민교육헌장과 교육칙어는 전체 구조가 같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민족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다. 세 번째 문단에서 각오를 강조하는 부분도 모두 조상의 얼을 되살려 공익을 위해 협동하고 희생하여 영광된 조국의 내일을 건설하자는 내용이다.

국민교육헌장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국가 가치에의 복종요구, 성장이데올로기), 능률과 실질과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유능한 기능인력), 반공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의 정신(반공) 등을 핵심내용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리자는 복고적 가치, 즉 충효 이념이 추가되는데 이것은 그러한 국가권력의 통제에 순응하고 동원되는 백성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복고적 민족주의를 통해 국가에의 복종과 동원을 이끌어내어 정권기반을 보다 확고히 하고자 의도가 있는 것이다.⁵¹⁾

민족 전통을 강조하면서도 식민지 교육의 잔재인 교육칙어와 비슷한 국민교육헌장을 제정하여 국가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국민을 양성하고 동원하려함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국민교육헌장 제정에 참여한 기초위원들이 식민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칙어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민족의 전통을 존중하는 정권임을 내세우면서도 과거 식민지시대에 강조했던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국민에게 역설하였던 것이다.

51) 강미래, 앞의 논문, 2002, 41쪽

2. 근대화론과 국가주의의 주입

박정희 체제에는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된 1968년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경제발전 논리가 강하게 작용했다면, 이후에는 군사주의와 국가주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했다.⁵²⁾ 그래서 전반기에는 선건설 후통일 논리를 강화시켜나갔다면, 후반기에는 총력안보체제론을 강화시켜나갔다. 박정희 체제는 5·16을 계승하여 자주 자립의 주체의식을 강화하고 수출제일주의를 실현하여 완전 자립경제에 이르는 자립국가를 확립하는 것을 중시했다. 그는 경제적 자립 없이는 민족주의도 실현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경제적 자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 중심 체제 구축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그는 자아의식과 민족의식, 국가의식을 같은 열에 설정했다.⁵³⁾

이러한 국가주의적 요소는 ‘제2경제’라는 낯선 개념을 박정희 스스로 창출한 것을 계기로 더욱 뚜렷하게 된다. 1968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박정희는 ‘제2경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였다.

‘제2경제’란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학술적 용어도 아니고 어떠한 학문적인 그런 개념을 가진 용어도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

52) “우리 전국민은 5천년 이어받은 조국애와 민족혼을 각자의 가슴속에 새겨서 당면한 모든 국내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중흥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저력으로서 다시금 반공의 정신무장을 새로이 하여야 하겠습니다”(박정희, <반공학생의 날 기념사> (1969. 11. 23), 대통령비서실,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I: 군정편》, 1973, 326쪽)

“경제 재건 없이는 공산당에 이길 수도 없고 자주독립도 기약할 수 없는 일이다.”(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 향문사, 1963, 265쪽)

53) 김석주, 앞의 책, 162-163쪽

낸 한 단어인데, 이것이 부적당하다면 적당한 말로 고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뜻은 우리가 경제를 건설하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또는 물질적인 면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동시에 정신적인 자세가 올바라야만 ‘경제건설이다’ ‘근대화운동이다’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축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중략)중전에 우리가 말하던 증산이다, 수출이다, 건설이다, 소위 통념적인 경제를 하나의 ‘제1경제’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지금 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면이라든지, 또 우리의 마음가짐 등 우리 국민이 근대화를 하는데 있어서의 철학적인 바탕 또는 기초 등을 ‘제2경제’라고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야기입니다.⁵⁴⁾

박정희 연설 안에서 ‘제2경제’ 개념의 의미를 파악해보면, 그것은 국민의 특정한 ‘정신자세’ 혹은 ‘마음가짐’을 가리키는데, 그것을 제2의 경제라고 명명한 이유는 경제건설이나 근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철학 혹은 정신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여기까지 본다면, ‘제2경제’의 의미는 사회근대화론에서 말하는 ‘근대성’이나 ‘합리성’ 혹은 인간자본론에서 말하는 ‘생산성’,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제2경제’의 의미는 그보다 더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다.⁵⁵⁾ 요컨대 ‘제2

54) 대통령비서실 編,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3 : 제 6대편』, 대한공론사, 1973, 133-134쪽

55) 1964년 발족한 제3공화국 정부는 ‘조국의 근대화’와 ‘민족의 중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념을 더 전면으로 부각시켰다. 민주주의의 교육이념이 어느 면에서는 다소 퇴색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었던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었다. 1960년 후반에 들어와 이른 ‘제2의 경제’가 강조되었다. 그것은 ‘제1의 경제’가 주로 물질적 측면에서의 근대화를 강조하고, 경제발전계획의 추진으로 경제의 성장과 공업화의 추진에 역점을 두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근대화와 민족중흥의 정신적 기반

경제' 개념은 민족주의, 국가주의의 교육이념을 경제성장과 연결시켜기 위해 구안된 개념이며, 앞절에서 언급한 이항대비의 틀로 말하자면 개인적 공리가 아닌 사회적 봉사, 이기주의가 아닌 민족적 유대의식, 지식과 기술의 편중이 아닌 인격도야에 해당되는 것이었다.⁵⁶⁾

이러한 '제2의 경제' 개념은 현실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현실을 끌어 들여 철학함의 주제로 정면으로 문제 삼는 박종홍의 철학과 결합하면서 국민교육헌장을 탄생시켰다. 그는 논리학을 포함하여 철학적 문제의식 자체를 바로 국가현실과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철학적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어떤 저항이나 비판보다도 '창조'라는 이름의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과제에 친화적으로 발전시킨 그의 철학이 국민국가 수립이라는 역사적 전환기 앞에서 적기를 맞은 결과였다.

그가 얘기하는 '창조의 논리'는 어떤 미학적 예술적 작업이 아니라 명백히 정치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즉 "창조는 엄연한 필연적 범칙의 제약 밑에서 우리의 사회, 국가, 민족 내지 전 인류의 요청으로서의 일정한 목적을 현실적으로 구현화하는 실천이다" 그는 여기서 그런 창조적 실천의 대상으로 자연을 가공하여 산업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기술'과 사회를 대상으로 사회조직과 제도를 새로이 만들어내는 '정책' 두 가지를 적시하고 있다.⁵⁷⁾

'제2경제'와 '창조의 논리'를 모태로 하여 만들어진 국민교육헌장에는 이러한 국가주의적 요소가 잘 나타나 있다.

을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1967년, 1968년에 창조된 '제2의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국민의 정신혁명을 교육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데서 국민교육헌장의 제정은 실현된 것이었고, 그것은 교육이념에 있어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념을 더욱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문교40년사편찬위원회, 『문교 40년사』, 문교부, 1988, 7-8쪽)

56) 오성철, 「박정희의 국가주의 교육론과 경제성장」, 『역사문제연구』 통권 11호, 2003, 64-65쪽

57) 홍윤기, 앞의 글, 「박종홍 철학 연구 : 철학과 권력의 퇴행적 결합」, 183쪽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국민교육헌장 중절에는 개인 윤리인 성실한 마음, 튼튼한 몸, 창조의 힘, 개척의 정신과 사회 윤리인 공익과 질서, 능률과 실질, 경애와 신의, 협동정신 그리고 국가 윤리인 창의와 협력, 자유와 권리, 책임과 의무, 국민정신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모든 덕목들이 나라 발전을 위해 개인이 갖추어야 하는 것들과 사회와 국가가 올바르게 성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들이다.

그리고 『국민교육헌장독본』에서는 중절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창조는 결코 나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노력할 때에 비로소 참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창조의 성과가 우리들 자신의 삶을 향상 발전시키는 토대로 되는 것이다.(중략)우리들의 최대의 과업은 민족 중흥이다. 이 거룩한 사명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국가건설과 발전을 통하여 비로소 달성되는 것이다.(중략)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투철

한 국가의식이 요청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중략)국가는 우리가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다.⁵⁸⁾

여기서 “국가를 위한 희생과 봉사는 개인을 위한 희생과 봉사이다.”라는 논리에 입각하여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주장한다. 여기서 개인과 국가는 독립적인 두 실체간의 대등하고 호혜적인 관계가 아니라 전자가 후자에 종속되는 관계로 설정된다. 요컨대 그 기본원리는 ‘사회유기체설’에 입각한 국가주의이다.

박정희에게 국민교육헌장은 오로지 한 문장, 즉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라는 문장으로 집약될 수 있겠다. 이 문장에 나타난 덕목들은 병렬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상의 선후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기에 깔려있는 ‘개인’ 대 ‘국가’, ‘권리’ 대 ‘의무’, ‘자유’ 대 ‘책임’의 이항대비는 1964년 연설에서 ‘이기주의’ 대 ‘사회적 봉사’, ‘지식과 기술편중’ 대 ‘인격도야’라는 이항대비가 한층 국가주의적 성격을 농후하게 하는 방식으로 반복 변주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⁵⁹⁾

국민교육헌장에서 개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면서도 국가와 개인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하여 국가의 발전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된다. 국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를 통해 박정희 정권의 교육의 목표가 개인의 자아실현에 있지 않고 국가 발전을 위해 희생하는 인간양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교육목표 아래 이루어진 학교교육은 경제발전을 뒷받침할만한

58) 문교부 編, 앞의 책, 40-55쪽

59) 오성철, 앞의 글, 68쪽

인력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반공주의의 강화

국민교육헌장은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와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라고 끝을 맺는다.

국민교육헌장 초안에도 없던 반공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수정과정에서 헌장의 핵심개념이나 이념으로 부각되는 데는 헌장이 제정되었던 당시에 국내외 정세와 관련 있다. 한국은 월남에 대규모 전투병력을 파견한 상태였고, 국제적으로 월맹과 연대한 북한은 한국군을 견제하기 위해 남한 내에 무장공작대를 침투시켰다. 원산 앞바다에서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가 피랍되는가 하면⁶⁰⁾, 북한과 가까운 상공에서 미군 정찰기가

60) 1968년 1월 23일 오후, 미 해군 최신예 전자첩보함 한 척이 북한의 영해인 원산 앞바다에서 첩보활동을 벌이던 중 북한군에 의해 나포되었다. 나포된 첩보함의 이름은 푸에블로호(USS Pueblo)였고, 함장 로이드 부커(Lloyd M. Bucher)를 비롯하여 미 해군 장교 6명, 병사 75명, 민간인 2명, 총 83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푸에블로호는 1967년 12월 2일, 일본 사세보(佐世保)항의 미군 해군기지를 출발하여 첩보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 북한이 P-4 초계정 네 척과 미그기 두 대를 동원하여 진행한 나포 과정에서 미국 병사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는 전원 체포·억류되었다. 미군의 정보함이 타국군에 의해 나포된 것은 미 해군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으며, 그 자체로 미국에 수치를 안겨준 사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최신예의 전자첩보함을 적국에 빼앗겼다는 사실은, 미국이 군사정보와 암호체계를 용도 폐기하고 새로이 개발해야 한다는 막대한 재원의 손실을 의미하였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한 미 정책결정자들은 이 사건이 미국에 대한 명백한 전쟁행위라고 규정하고, 평양에 대한 핵위협-핵공격으로 대처한다는

격주되었다. 당시 국제냉전 조건 아래서 한국국가의 활동상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하여 자유진영의 최전선에 희생을 치렀다”고 주장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⁶¹⁾

실제로 한국은 냉전의 주도적 당사국들 가운데 하나인 미국보다 더 미국에 유리하게, 그것도 냉전을 열전으로 바꿔가면서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현장 제정 당시의 준전시상황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국과 소련이 긴장완화정책을 추구하고 닉슨 독트린⁶²⁾으로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

데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기에 미국의 국내외적 조건은 여의치 않았다.

따라서 미국의 감정적 핵공격안은 시간이 지나며 가라앉았고, 1968년 2월 1일부터 미국과 북한은 동등한 자격으로 비밀협상에 들어갔다. 10개월 여에 걸친 협상 끝에 미국은 푸에블로가 북한의 영해를 침범한 사실을 시인하고 북한에 공식 사과했다. 북한은 82명의 생존 승무원과 시체 1구를 판문점을 통해 미국으로 돌려보냈고, 이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푸에블로호 선체와 장비는 돌려주지 않았다. 북한은 푸에블로호가 자신의 전리품이므로 미국이 사과성명을 낸다 해도 돌려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은 승무원이 모두 무사히 귀환하자, 다시 성명을 내어 북한 영해를 침범한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사과 발언을 번복했다.

- 61) 홍윤기, 앞의 글, 「한국 도덕·윤리 교육의 이념적 혼돈과 정체성의 위기」 329-330쪽
- 62) 닉슨독트린은 1969년 미국 대통령 닉슨이 처음 피력하고, 구체화된 새로운 아시아 정책을 의미한다. 1970년 2월 닉슨은 국회에 보낸 외교교서를 통하여 그의 새로운 대아시아정책인 닉슨독트린을 세계에 선포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 ② 미국은 아시아 제국(諸國)과의 조약상 약속을 지키지만, 강대국의 핵에 의한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그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 ③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지만 직접·군사적인 또는 정치적인 과잉개입은 하지 않으며 자조(自助)의 의사를 가진 아시아 제국의 자주적 행동을 측면 지원한다.
 - ④ 아시아 제국에 대한 원조는 경제중심으로 바꾸며 다수국간 방식을 강화하여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피한다.
 - ⑤ 아시아 제국이 5~10년의 장래에는 상호안전보장을 위한 군사기구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 닉슨 독트린의 의의는 대아시아 정책의 전환을 가져왔고, 전세계의 탈냉

왔을 때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적극적으로 또 거국적으로 반공투쟁에 매진했다. 반공은 당시 상황에서 한국국가와 박정희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승리자 편에 설 수 있는 절호의 명분이었다. 따라서 반공이란 것은 당시 대한민국 국가의 주권과 박정희 권력에게 절대절명의 문제였다.

그래서 당시 ‘새로운 국민상’을 정립하기 위해 만든 국민교육헌장에 반공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핵심으로서 국민생활과 의식 전반을 규제하는 최고의 원칙으로 관철되었다.⁶³⁾

박정희에게 있어 반공은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문제이기도 하는 동시에 체제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고, 더 나아가 반공이테 올로기는 경제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한 안보라는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그것은 기존의 소극적, 방어적 내용으로부터 변화되어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갖게 되었다⁶⁴⁾는 것이 종전의 반공주의와는 성격이 다른 성격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미국식의 자유민주주의⁶⁵⁾를 내세웠으나 자유민주주의의 이식보다는 자신의 권력강화와 유지에 더 몰두하였기 때문에 정치 체제는 권위주의체제로 변모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공산주의와의 대결이라는 분단 상황의 논리로 인하

전의 기류를 만들었으며, 미국의 대공산권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대결’에서 ‘대화’ 또는 ‘협상’으로, 해결보다는 조절을, 군사보다는 경제로, 개입보다는 자위를 중히 여기는 상대적 안전보장 개념을 취하게 되었다.

63) 홍윤기, 앞의 글, 「박종홍 철학 연구 : 철학과 권력의 퇴행적 결합」, 198쪽

64) 최장집, 이성형, 「한국 사회의 정치이데올로기」,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녹두, 1991, 219쪽

65)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의 신질서를 구상하면서 자신이 점령했던 지역에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이식할 것을 중요한 정책 목표의 하나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소련 공산주의 세력 확대의 저지, 즉 반공이라는 또 하나의 정책 목표와 짝을 이루는 것이었다(김영명, 『한국현대정치사』, 을유문화사, 1993, 86쪽)

여 실제로는 반공이념으로 대체되거나 변질되었다.⁶⁶⁾

물론 한국민에게 반공이데올로기가 통치자로 하여금 권력장악을 위한 수단 가능성을 열어준 것은 무엇보다 6·25전쟁으로 인한 것이다. 한국전쟁은 휴전을 전시체제라고 강조하여 안보를 구실로 국민의 생활과 사상통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까지도 탄압하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⁶⁷⁾

반공은 북한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였고, 또 실제로 그러했던 측면도 있었지만, 현장에 나오는 반공 민주주의는 전적으로 남한 내부에서 자신의 권력입지를 정당화하기 위한 박정희 고유의 이데올로기적 창작물로서, 박종홍은 거기에 철학적 성격의 개념과 정당화의 논변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바로 이런 철학적 구조 안에서 반공이 곧 민주주의 그 자체라는 논변이 개발되었다.⁶⁸⁾

박정희 정권은 반공과 민주주의를 동일시하는 사고를 국민교육현장을 통해 공식화하였다. 그리하여 박정희 자신의 권력입지도 확고히 하고 국민의 의식전반을 규제하여 박정희 정권과 다른 어떠한 사고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국민 개개인의 의식규제는 유신체제를 정당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66) 김영명, 『한국현대정치사』, 을유문화사, 1993, 95쪽

67) 허재영,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그 전개와 특질」, 『한국사회의 성격과 운동』, 공동체, 1987, 22쪽

68) 홍윤기, 앞의 글, 「한국 도덕·윤리 교육의 이념적 혼돈과 정체성의 위기」, 331쪽

V. 結 論

국민교육헌장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역점을 두었던 경제성장을 위한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국민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수정되면서 나타나게 되었다. 국민교육헌장은 서구문화의 도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고유문화의 바탕 위에 새로운 민족관을 세우고, 국민사상을 통일시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표의 마련을 위해 제정작업에 착수되었다. 그러나 국민교육헌장에는 경제개발주의, 국가주의, 반공주의를 통해 박정희 정권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정부에서는 국민교육헌장을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국민에게 주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인 민족적 전통을 강조하고 국가와 개인이 공동 운명체라는 논리를 국민에게 주입시켜 경제발전을 위해 국민들을 동원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민교육헌장의 주요이념 중에 하나인 반공민주주의를 통해 국민이 박정희 정권과 다른 어떠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였다.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은 1970년대 주체성 교육을 강조하는 국적 있는 교육으로 이어져서 국사교육, 충효교육, 총력안보교육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적 있는 교육은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의 연장선으로 충효라는 민족 전통을 강조하여 박정희의 독재적인 통치를 정당화하고, 군사주의적 사고를 도입하여 위계질서에 친숙하도록 만들어 갔다. 이것은 박정희 정권이 국민의 지지 가운데 유신이라는 과업을 이루는데 첫걸음이 되었고, 유신체제를 박정희 정권이 유지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국민교육헌장은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국민사상을 통일시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념적 토대로서의 역할도 했지만, 이를 박정희 정권이 전국민에게 배포하고 주입시켜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유신체제를 정당화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교육헌장은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바를 밝힌 교육이념일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행동과 의식을 통제하여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목적은 국민교육헌장을 기반으로 하는 국적 있는 교육을 통해 더욱 더 강화되어 갔다.

參考文獻

1. 資料

- 대통령비서실,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I: 군정편』
대통령비서실,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3: 제 6대편』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제67회 국회 문교공보위원회회의록 제10호』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제67회 국회회의록 제24호』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 향문사, 1963
『경향신문』 1968년
『동아일보』 1968년
『조선일보』 1968년
『한국일보』 1968년

2. 著書

-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편, 『교육 50년사 : 1948-1988』, 교육부, 1998.
국민교육협의회, 『국민교육현장의 자료총람』, 한국경영개발협의회, 1972.
김석주, 『현실 속의 철학 철학 속의 현실 : 박종홍 철학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 책세상, 2001.
김영명, 『한국현대정치사』, 을유문화사, 1993.
김진균, 정근식 공저,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세력』, 문학과학사,

1997.

문교 40년사 편찬위원회, 『문교 40년사』, 문교부, 1982

문교부 편, 『국민교육헌장독본』, 동아출판사, 1968.

박성탁, 『국민교육헌장의 사상적 배경과 그 실천(上)』, 교육출판사, 1972.

안상원 등편, 『한국교육 2000년사』, 한국청년문화연구소, 198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식민생활』, 혜안, 2004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전국자연철학교육자연대회의 편, 『한국 도덕·윤리 교육백서』, 한울, 2001.

조진경 외저, 『한국사회의 성격과 운동』, 공동체, 1987.

중앙대학교 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문교사』, 중앙대학교 출판국, 1974.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교육정책의 이념(Ⅱ): 국가발전과 교육 (1960-1979)』, 한국교육개발원, 1986.

한국산업사회연구원 편,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지식사회학적 이해』, 녹두, 19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박길성 외저, 『1960년대 사회변화 연구: 1963~1970』, 백산서당, 1999.

한국정치연구회, 『박정희를 넘어서』, 푸른숲, 1988.

3. 論文

강미래, 「교육현장에 내재된 일상적 파시즘의 실태와 극복방안」, 진주교

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강원도교육연구원 편, 「생활지도를 중심으로 한 국민교육헌장이념 구현에 관한 실천적 연구」, 『원보』 제 1호, 1969. 12.

김문기, 「국민교육헌장 이념구현 실천기」, 『전남교육』 제 29호, 1972. 6.

김인회 외, 「해방 이후 반세기의 현장 자료분석을 통한 교육현장의 정치역학적 성격 규명에 관한 연구」, 『연세교육연구』 제 13호, 2000.

박호근, 「한국 교육정책과 그 유형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오성철, 「박정희의 국가주의 교육론과 경제성장」, 『역사문제연구』 통권 11호, 역사비평사, 2003.

유형진, 「국민교육헌장이 뜻하는 것: 60년대 문교정책을 채점한다」, 『새교육』 21, 대한교육위원회, 1969.

_____, 「국민교육헌장 제정의 비화」, 『교육평론』, 교육평론사, 1978.

홍석률, 「1960년대 한국 민족주의의 두 흐름」, 『사회와 역사』 통권 제 62집, 문학과 지성사, 2002.

홍윤기, 「박종홍 철학 연구: 철학과 권력의 퇴행적 결합」, 『역사비평』 제 55호, 역사비평사, 2001.

ABSTRACT

A Study on the National Charter of Education and the National Control of Park Jeong-hi Government

Seong Yun-jeong

Major in History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National Charter of Education was enacted by the political intention that aims to nurture manpower suitable for positively supporting the modernization such as the 5-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that Park Jeong-hi government propelled. On January 18 of 1968, president Park Jeong-hi directed the minister Gwon O-byeong for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enact the bill of education that can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a long-term and sound direction of national education and to the establishment of soundly living moral and of value system with respect to the civic life,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of Korea. The final bill was prepared after experts in each field gathered to prepare a draft of the National Charter of Education and after passing through the amendment work and the examination process of

several times.

The final bill was solemnly proclaimed under the name of president Park Jeong-hi on December 5 after passing through the regular assembly session on November 26. The Ministry of Education allowed students and civil servants to recite the whole sentence aiming to propagate the National Charter of Education and issued a reading book for the National Charter of Education in a bid to allow this to be dealt with at the curriculum time. And, it unrolled the movement of establishing the living attitude by deciding on the school-life rule based on the charter and by regularly evaluating and also allowed an educational plan for each of Board of Education, Office of Education, and a school to be set up based on the embodiment measure of the charter.

The comments of a draft for the National Charter of Education, citing that it has a background of tradition, heads for democratic society, and guarantees the national people freedom, peace and justice, aiming to develop human resources available for being mobilized to the economic development, were combined with the economic-development logic and the racial identity while the amendment work was being progressed several times. Therefore, it came to request the national people to absolutely obey the nation. This point is similar to the National Charter of Education by Meiji Tenno, which was promulgated in 1890 aiming to justify the power of Meiji emperor.

In terms of Park Jeong-hi government, before the year of

1968, the economy-first policy functioned, and after it, the logic of nationalism worked strongly. Thus, it emphasized to the national people that the national development is my development, and came to ask for the national spirit that voluntarily participates in and serves the national development.

Amid the circumstances at home and abroad such as dispatching troops to Vietnam, Pueblo event, and Nixon Doctrine, it was the golden justification in which Park Jeong-hi government could stand on the side of a victor internationally and nationally. So, as the anticommunism in the National Charter of Education is the core that can never be conceded, it was realized as the supreme principle that restricts the whole of national living and consciousness.

The ideology for the National Charter of Education was succeeded as the non-nationality education that lays stress on the education of identity in the 1970s. Thus, Park Jeong-hi government became the first step in achieving a task called Yusin (Revitalizing Reform) and became the groundwork in completing the system of Revitalizing Reform.